

특집Ⅱ

「제2회 지구의 날」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지구의 위기 - 어디까지 왔나〉

일시 : 1990. 4. 20. (금) 14 : 00
장소 : 한국소비자보호원 대강당
주최 :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 협의회
주관 : (사)한국 부인회

참 가 자

- 사 회 : 노응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구환경위기 실태 및 극복방안”
- 토 론 : 1. 심재곤 (환경처 정책조정과장)
“환경보존이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서주석 (동력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 부분의 환경보존대책 방향”
3. 박창근 (환경교육회 위원장)
“환경문제 국제화시대를 위한 대비”
4. 조용순 (자연보호 봉사단 학술부장)
“지구의 기상이변과 자연보호”
5. 김성희 (한국부인회 총본부 총무부장)
“환경보존운동과 소비자 운동”



◀ 노동희



김정욱 ▶

사회 먼저 김정욱교수의 주제발표를 들겠습니다.

김정욱 주제발표

사회 김정욱교수가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곤과 장남께서 “환경보전이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실텐데, 흔히들 상식적으로 환경보전을 하려면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하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환경보전을 안해야 한다는 양자택일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것인지 아니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것인지 발표해 주시죠.

심재곤 환경문제는 여야가 없고 인간이면 모두 심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을 하는데 있어 기업과 민간단체와 국민들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고, 정부는 어떻게 하면 환경보전과 성장을 잘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제철기업의 부동산투기내용이 크게 실리는 것을 봅니다. 기업이 부동산투기등을 하면서 기술축적을 소홀해 수출이 부진해지고 국내적으로는 물가가 불안해지는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환경문제를 추가하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환경보전이 가능한지 그 양립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학자들 간에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에 기여할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자원과 에너지, 노동력을 잘 보전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킵니다. 가령 기름진 토양, 해양자원등을 잘가꾸 양질의 생산요소로 만들어 이 생산요소를 잘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 경제력을 높입니다. 또 쾌적한 환경조성은 양질의 노동력과 공해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막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여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으로 폐수, 폐기물, 하수처리장시설 조성등은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은 소득수준과 비례해나가는 하마그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도 커져야 합니다. 또 환경에 대한 투자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가 높아집니다. 가령 연탄대신 LNG보급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배출업소를 강력히 규제한다면 이에 대응해 기업들의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도 높아질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매연차량단속을 강하게 밀고나가자 자동차업체에서는 무연휘발유 차량을 개발해 내는등 기술개발에 앞장선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보전은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환경보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환경문제의 시초는 인간의 탈생물적인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과장님의 말씀대로 개발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개발이라는것은 먼훗날의 우리후손도 개발할수 있는 여지를 남긴 그런 오늘의개발, 곧 자연이 갖고 있는 회복능력 안에서 하는 개발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개발은 관은 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서구문명의 특색이 에너지의 다소비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라곤 태양에너지뿐인데 이자원을 다쓰고나면 종말이 올텐데 그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서주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주석 제가 이자리에 참석하게된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는 지구환경의 위기중 대기오염의 원인이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발생하는 것



◀ 서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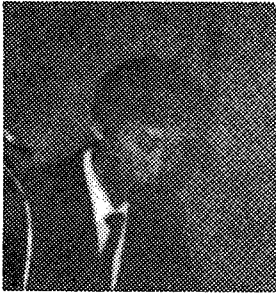
▶ 심재곤

이 80%이상이므로 에너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에너지의 소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것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하게 된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80년에서 85년까지 에너지가 연간 5%씩 증가했고 89년까지 9.8% 증가했고, 작년은 경제성장이 6.7% 인데도 에너지는 8.4%가 증가했는데 그중 석유가 21% 증가했고 휘발유가 37%이상 늘어났습니다. 과거엔 에너지가 산업과 직결된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레크레이션이나 비산업부문, 서비스산업등에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부문은 2.2%의 성장을 했는데 이는 막대한 에너지가 다른부문에 쓰여졌다는 결론이고, 이것은 우려할 만한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국의 심양, 테헤란 다음으로 서울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등 인구밀도등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환경밀도가 높다고 볼수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볼때 석유의존도가 과거엔 100%였으나 지금 석유 발전은 30%정도이고 석유의존도가 78년에 약 63%가 87년에 44%까지 낮출수 있었습니다. 환경문제와 에너지수급의 조화를 위해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보급율이 현재 13%이나 전국대도시 가스보급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석유의존도를 더줄일수도 없고 도시가스를 다 보급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석탄, 석유, 가스, 태양열등을 한가지에 의존하지않고 골고루 써야 합니다. 문제는 석탄입니다. 석탄 수요는 최근 유가하락등으로 사용이 줄어가고 있지만 전혀사용하지 말아야 하느냐 가령 달동네같은 곳은 어쩔수없이 연탄등을 쓰고 있는데 막기만 한다는것

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개별난방이 아니라 지역난방등으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게되면 집중처리 할수있고, 여러가지 에너지를 다양하게 쓸수 있어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때 잘 대처할수 있다고 봅니다. 동자부가 환경처와 협의하에 장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에너지수급과 경제발전이 무리가 없는 한에서 에너지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란 것은 소비할때마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또한번 환경오염이 되면 제거시키는데 비용이 들므로 에너지소비절약을 환경차원에서 새롭게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다음엔 박희장님을 모시겠는데 피타드라코라는 학자는 '새로운 현실'이란 책에서 경제와 환경은 나라를 초월한 전지구적인 개념으로 보고있는데 그런의미에서 박희장님이 "환경문제 국제화시대를 위한 대비"라고 하신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박희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창근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3차세계대전 이 일어난다면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적 분쟁때문이라란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환경오염상태 보다 지금 현재의 오염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해결이 곤란한 상태에 와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국 윌드워치 연구소에서 나온「지구환경보고서」에서는 산성비로 인한 산림의 고갈로 인해 산소가 줄어들고 있다는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런 환경질의 저하로 인해 곡물생산이 매년 1,400백만톤씩 줄고있어 전세계의 수많은 인구가 기아에서 헤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적인 경우,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중 한명



◀ 조용순



박창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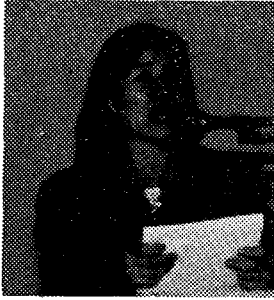
은 남성분이 오염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것들과 오존층소멸, 온실효과, 사막화현상, 산성비 이런개체의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모든 것들의 복합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 이 개체들에 대한 문제는 연구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복합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합성은 우리가 쉽게 보듯이 기상이변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심각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여러분이 알고계시지만 노르웨이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16,000개의 호수중 7,600개 호수가 산성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가 그렇게 공업이 발달한 도시나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서부유럽인 영국 독일 프랑스등지에서 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노르웨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또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업화로 인해 생긴것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미국측에서도 이점에 대해 딱 긍정적입니다. 우리의 경우, 황사현상만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점들이 국제적 분쟁의 기본적인 불씨가 됩니다. 이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속담에 '뉘 묻은개 재묻은개 나무란다'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자세가 바를때 다른나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먼저 기업의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각부처간으로 나뉘어 있는 환경업무를 환경처에 몰아주어 일관된 정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또 국민의식도 소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보전 정책을 잘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해야하고 기업을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실천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90년부터 95년까지 대대적인 식목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에 먼저 심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연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다음은 자동차 교통수단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환경보전 우선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조용순부장님께서 요즘 논란이 많이되고 있는 지구의 기상이변과 자연보호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용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중에 온실효과, 기상이변의 한예로 허리케인, 태풍을 들수 있습니다. 이원인은 바로 환경오염의 결과때문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5년이나 10년전보다 더 큰 원인은 대기권의 CO₂가 2배 상승하면 태풍의 속도가 25%증가하기때문에 현재의 피해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양유실의 경우, 쉽게말해 인천 앞바다의 해저높이가 1m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1m 중 절반은 토양유실로 인해 쌓인것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수천 km떨어진 해저바닥의 모래가 해류를 타고와서 쌓인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모든 문제를 환경문제와 연관시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요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CO₂농도가 높아진것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어 진거냐하면 아닙니다. CO₂ 전체의 3분의2는 해양의 플랑크톤이 생산해 낸것이지든요 정확한 자연현상을 파악하지 않고는 그 정확한 대처방안을 알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욕구는 높아만가는데 이를 충족키위해 무엇을 해야 할것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잘



◀ 김성희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남에게 기댈때는 지났습니다.
환경문제를 내문제로 인식하여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국부인회 김성희 총무부
장님을 모시고 말씀들어 보기로 합니다.

김성희 소비자 보호법이 1970년에 개정되면서 소비
자권리가 포함되었어요. 7가지 권리가 됩니다. ①유해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시킬권리 ⑤보상을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권리 ⑦단체조직의 권리가 있습
니다. 그중 한가지가 빠졌는데 그것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권리'입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8대권리를 선포하
고 있는데 이중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포함돼 있
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추가시킬 예정입니
다. 이처럼 우리가 구태여 법속에 이권리를 포함시켜야 하
는 이유는 다음문제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
는 공개되어야하고 소비자가 이를 요구할수 있어야 합
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는 비공개적
인것이 많기때문에 이를 요구하기위해 이법이 필요합
니다. 이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나가자는 것때문입
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시점에서 할수 있는것은 행동
하는 개인환경보전운동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지않고 남에게 기댈때는 지났습
니다. 환경문제를 내문제로 인식하여 생활속에서 실천
해야 합니다.

환경문제 처리에 대한 전담기구의 설치. 이용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환경처 산하에 분쟁조정위원
회가 설치되어있듯이 소비자단체에도 환경문제 분쟁조
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계신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가 지구의 환경을 보

전해 나가는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이상으로 다섯분의 참가자의 토론이 끝났습니
다. 이제 토론의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미국의 도와이프
와일드라는 행정학자가 70년도 지구의 날 행사를 보고
글을 쓴게 '현대인의 고민을 한쪽은 상승기대의 혁명
또한쪽은 하강기대의 혁명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승기
대란 풍요한 삶이고, 하강기대란것은 자원의 고갈 같은
게요. 지구의 날 행사를 캘리포니아 산호세 분교에서
하는데 학생들 의견이 멋진 자동차를 사서 땅에 묻어
버리자고 결정이 났데요. 이전 하강기대의 혁명입니다.
4월22일이 되어서 행사를 시작하는데 땅은 포클레인으
로 파고 학생들은 자기차를 타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
가요. 이게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생활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과학기술이 자연을 훼손하고 정복하는 걸로 발
달해왔기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반 서구문명으로 나가 해결이 될것인가 하
면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양문명이 이원화된 논
리에 서있지만 동양사상은 중간논리가 있습니다. 그래
서 서양이 요즘 동양철학을 연구하는것이 이때문이지
요. 우리는 서양의 진보주의를 재검토하지는 것이지요.
중간논리를 전제로 우리의 인류문명을 한번더 비판해
보아야 할 것이고, 주부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일을 한다는것이 이행사가 주는 제일 큰 보람이라고
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연사님과 청중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정리 : 이정옥)